

“금강산 신계사 3층석탑 통일신라때 조성된 것”

금강산 4대 사찰의 하나인 신계사 터에 대한 현장 조사 보고서인 <금강산 신계사지 지표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조사 보고서는 해방 후 북한지역 문화재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학술 보고서인 점에서 향후 북한지역 불교 문화재 조사 연구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현)와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정각)이 지난 해 11월 2일부터 열흘간 신계사 터 일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는 조사 성과 이전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해방 후 최초로 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어 실시한 조사라는 점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신계사 복원에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첫 북한지역 문화재 조사, 보고서 발간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된 신계사는 현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이 수행했던 곳이기도 하다.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대웅전과 만세루를 중심으로 21채에 이르는 전각을 갖춘 대가람이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불에 타 지금은 삼층석탑 1기와 만세루 돌기둥, 일부 건물의 주춧돌만 남아 있으며 현재 북한의 국보유적 95호로 지정돼 있다.

계열의 것이라며 이 같이 결론지었다. 하지만 한국 전쟁 당시 폭격으로 기반부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뜻말을 설치돼 있는데, <유점사 본말사지>의 '신계사지'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한 것이다. 기록에는 묘사대로 추정되는 최승전터가 60여 칸에 이르고 있어 있는 반면 현장에는 조그마

대웅전·만세루 등 전각 21채 대가람 북한 당국 허가·복원 첫 발 의미 일부 전각배치 기존문헌과 차이 발견

현장 조사 결과 신계사터에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유일한 유물인 삼층석탑이 9세기 후반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이라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고려시대 조성설이 우세했던 이 탑에 대해 문명대 교수(동국대)는 기반부에 새겨진 비전상과 팔부중앙의 조각 양식이 같은 강원도 지역의 9세기 석탑인 진전사지 삼층석탑과 선림원지 삼층석탑 양식과 같은

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미 1974년 <신계사터 발굴조사보고서>를 펴냈으며 1998년에는 일제시대 자료를 토대로 중앙 당시의 대웅전과 만세루 등의 설계도를 완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터에는 건물터마다 전각 이름이 적힌

한 묘사대로 추정되는 최승전터라는 뜻말이 세워져 있다. 규모로 봐서는 1926년 최승전터 뒤에 4칸 규모로 신축했다는 창고일 가능성이 높다. 현 최승전터 동쪽의 넓은 소나무 군락에서 기와 조각과 건물의 초석이 발견되는 것을 볼 때 이 소나무



군락이 원래의 최승전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전 보고서에는 <신계사지>에 기록된 연혁 부분 이외에도 일제시대 자료를 집대성해 신계사 연혁을 새로 정리해 실었다.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어 앞으로 신계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문어체 경전 구어체로 번역

역경헌신 백용성 스님 활동 재조명 세미나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 스님)은 2일 '백용성 스님과 한국 불교 역경의 역사적 조망'을 주제로 정기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에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설립, 한글 역경에 헌신한 백용성 스님의 활동을 재조명함으로써 역경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용으로 유포한 것 역시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수익금이 재투자됨으로써 지속적인 역경 사업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각사상연구원 김광식 연구부장은 "용성 스님은 3·1 운동의 영향, 수감생활에서 타 종교의 서적이 모두 한글로 번역된 것에 대한

보광 스님은 "용성 스님은 과감한 번역으로 문어체 경전을 대화체로 번역해 마치 부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했다"며 "특히 조선시대 배배 정책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용어를 새롭게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

3·1 운동'으로 수감중 한글화 발원

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관심 등으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운창화 도사출판 민족사 대표는 "불교 경전은 문장체보다는 구어체가 더 자상하고 의미전달도 유리하다"며 역경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 씨는 "문장체가 구어체에 비해 격조는 있는 편이지만 뜻이 추상적으로 굴절되어 애매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경전 특유의 구구 절절하고 자상한 모습도 살릴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결국 불교는 어렵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삼장역회 설립 체계적 번역 시도

삼장역회 설립 체계적 번역 시도

백용성 스님의 역경 활동과 그 의의'를 주제 발표한 보광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은 용성 스님이 삼장역회를 설립해 경전을 번역한 것은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한 이후 처음으로 체계적인 한글 번역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무주 상보사를 당연시하던 당시 풍토에서 판매

“김수로왕 허황후 인도출신 아니다”



이경식 교수 '가야사 학술회의'서 주장

금관가야가라곡, 김해지역을 세운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후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평안도나 황해도에서 김해로 이주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에서 출토된 한 나라 양식의 중국식 거울, 세 발 달린 청동술, 통용되던 화폐 등에서 한 나라 계통의 문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허황후가 가지고 들어왔던 문물은 낙랑 등 4국이 설치된 서북한 지역인 평안도나 황해도 지역의 선진문물로 추정되며 허황후 역시 이 지역의 지배계급 출신으로 김해로 이주해 왔다"고 주장했다.

4월 30일 열린 제8회 가야사 학술회의에서 '대가라곡 대가야의 건국 신화'라는 주제 발표를 한 이경식(사단) 교수는 "『삼국유사』 가라곡기'는 허황후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전하지만 현재까지 김해지역의 고고학 조사에서 인도의 계통의 유물이나 유적이 확인된 적이 없고, 이를 보완할 만한 문헌자료적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안도 지역에 한 4군이 있었고, 한 나라 화폐가 서기 40년까

서북한 지역서 김해이주 가능성

기록상 문물 평안도 등 漢계통 확인

서기 40년까

대신 이 교수는 허황후가 중국(漢)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서북한 지역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즉 '가라곡기'에서는 허황후가 배에 싣고 들어왔던 물건들을 한(漢)의 호화로운 여러 가지 문물, 즉 한사 잡물(漢雜物)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김해의 화려한 패총, 양동리와 대성동 고분

지 통용된 점, 김해가 서기 3세기까지 동북아시아 교통로의 중심지로서 북방민족의 이주가 많았다는 점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이 교수는 "『삼국유사』 가라곡기'가 불교가 가장 성행했던 1076년(고려 문종)에 편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교 발생지인 인도에서 허황후가 출발한 것으로 유추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문광부 '100대 한국문화유산' 선정

석보상절·월인석보·능엄경언해 등 불교자료 17종 포함

석보상절, 월인석보, 능엄경언해, 초판심자경언해... 불자들에게 이들도 친근한 한글 불교 문헌들이 문화관광부가 추천한 '100대 한글 문화유산'에 선정됐다.

어천가, 훈장전 등의 유학서, 문헌서 뿐 아니라 구급방, 선조 국문교서 등 기술서, 생활사 자료까지 포함됐다. <월의 누>와 <서유견문> 같은 신소설도 있다.

'100대 한글 문화유산'은 한글 창제 후 1910년까지 나온 한글 문헌 가운데 문화사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만을 뽑은 것이다. 훈민정음이나 소학언해, 응비

불교 관련 자료는 17종이 들어갔다. 수양대군(세조)이 아버지 세종의 명을 받아 부처님 일대기를 한글로 기록한 <석보상절>은 한글로 옮겨진 최초의 불교 문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세종이 이를 보고 지

은 찬가인 <월인천강지곡>, 세조가 다시 이 둘을 합본해서 펴낸 <월인석보>는 불자가 아니라도 귀에 익다. <오대산상원사 중창권선문>은 세조와 그의 왕사인 해각존자 신미, 상원사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가장 오래된 한글 필사본이면서도 보존 상태가 완벽해 1996년 보물에서 국보(292호)로 등급이 오르기도 했다.

<능엄경언해> <금강경언해> <법화경언해> 등 최초로 한글로 번역된 불교 경전류, 선종의 6대조사인 혜능의 저술을 한글로 옮긴 <육조법보단경언해>, 원나라 승려 몽산화상의 법어집인 <몽산법어언해> 등도 조선 초기 국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들이다.

문화관광부는 △원본 영인 △현대어로 완역 △작품 해제와 연구 자료 정리 및 영역 ACD-ROM 디지털화 등을 통해 이들 한글 자료의 가치를 재조명해 나갈 계획이다.

괘불 7점 보물지정 예고



△최근 보물로 지정예고된 천은사 괘불탱.

조선후기 17~18세기 불교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 주는 괘불 7점이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은사괘불탱, 은사괘불탱, 오덕사괘불탱, 도림사괘불탱, 미향사괘불탱, 다보사괘불탱, 금탑사괘불탱, 만연사괘불탱을 보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2일 이를 예고했다. 이들 괘불들은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이 지난 후 정식 보물로 지정된다.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2004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삼각산 도선사 봉축행사 안내

일 자	내 용	장 소	시 간
4월 23일	태종전망대 점등식	태종전망대	오후 6시
5월 5일	산사음악여행	도선사 경내	오후 1시
5월 9일	봉축관내경로위안잔치	우이동 돌집	오후 10시
5월 15일	안양교도소 수계식 및 위문법회	안양교도소	오후 2시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및 봉축산사음악여행	도선사 경내	오전 10시 / 오후 3시

호국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주지 혜慈 청담문도회 청담문화재단 대종일동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02)993-3161~3 팩스 02)993-3164